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발전—1988~2022,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과 일본의 정치 시스템을 비교해 볼 때, 가장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대통령의 존재를 떠올리지 않을까요. 한국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제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5년마다 국민 직접 투표로 정권을 바꾸게 된 것은 1987년 시민혁명 이후부터입니다. 그럼 경제 면에서는 어떨까요? 일본과 같이 OECD(경제발전개발기구)회원국으로 선진적인 자본주의 경제국가이기에 언뜻 봐서는 일본과 그렇게 다른 점은 없어 보입니다. 실은 한국의 현대사는 일본 이상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자본주의 경제의 고도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약 10년후인 1961년부터 1993년까지의 긴 시간동안 군부정권이 대두하여, 국민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와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면에서는 특정 재벌을 중심으로 한 계획 경제에 가까운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을 도모해 왔지요. 1980년대 중반까지는 고도성장이 있었지만, 많은 자유가 제한되어 온 시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전 해인 1987년 6월, 시민들의 대대적인 데모 활동에 의해 대통령 선거 직접 투표권이 부활하였고, 1993년에는 민간 출신의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어 군부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 후 '세계화'라는 이름 하에 금융부문의 급격한 규제완화를 하였지만, 그 직후인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들이닥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정도로 경제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IMF가 요구한 시장 개방, 재벌 해체, 비정규직의 확대 등의 신자유주의적인 경제구조개혁을 행할 수 밖에 없게 된 한국사회는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IT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열매를 맺게 되어, 2000년대 들어서 점점 경제 상황이 회복되었습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보장정책이 확대된 것도 이 무렵의 일이지요.

그 후, 한국의 정치는 상대적으로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보수정권과 상대적으로 사회보장을 중시하는 진보정권이 번갈아 정권을 잡으며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도 국민들은 선거 뿐만이 아니라 이런저런 경제사회적인 현안에 대하여 평화적인 촛불시위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전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부정부패한 대통령을 탄핵한 후에도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였지요.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디지털산업에서 삼성, LG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격차와 높은 비중의 비정규고용, 높은 가계 빚 수준 등, 경제위기 당시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은 점은 앞으로의 한국 사회에 있어서 커다란 숙제이지요. 성숙한 민주주의에 의해 경제발전과 사회보장의 양립을 도모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김근삼(시가쿠칸 대학)